

空間的 分業과 地方勞動市場의 特性에 관한 研究* — 龜尾工業團地 纖維·電氣電子産業을 中心으로 —

박원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I. 들어가는 말

1. 問題提起 및 研究目的

공업의 지역적 특성이나 분포에 대한 記述的인 研究는 일찍부터 행해졌으나 지역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공업입지의 이론적 체계를 정립한 것은 Alfred Weber의 研究로부터 비롯된다. 그런데, Beber 이후 계속된 공업입지 研究의 主眼點은 입지결정자인 기업가가 최적 입지를 선택하는 문제였다. 즉 기존의 입지 이론은 공업체제보다는 개별기업, 노동자보다는 기업가, 임금 보다는 이윤에 초점(Massey, 1986, p. 34)이 맞춰진 研究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공업환경의 변화는 研究의 초점이 전자 보다는 후자에 두어져야 할 당위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것은 먼저 현대의 기술발전, 기업의 성장과 조직의 다양화, 그에 따른 새로운 企業空間構造의 발생(즉, 다입지 기업의 발생), 기업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기업과 기업, 기업과 환경 사이에 상호 의존체계가 발생(박삼욱, 1983a, p. 161; Hoyter & Watts, 1983, p. 158)하게 되어, 개별기업의 의사결정이 전체체제적 맥락에서 규정되고 이해되어진다는 사실과, 또한 기존입지이론에서 입지결정요소로만 이해되어온 노동이 다른 입지요소와 구별되는¹⁾ 특수성을 통하여 입지결정에 능동적인 주체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研究에서 추상화된 노동의 개념에 대한 특수성을 고려하려는 논의는 다양한 관

점에서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노동은 등질적 상품이 아니고 이질적 상품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노동이 차등적 기술도와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제도적으로 차별화되기 쉬운 상품²⁾이라는 사실을 아울러 포함한다. 그리하여 현대기술의 발달이라든지 사회조직의 다양화는 이러한 이질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어 주는 것이다.

둘째, 노동은 생산요소(혹은 입지결정요소)로 작용하지만 그 주체는 인간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사용주는 작업장에서 勞動力을 일시적으로 점유할 수는 있지만 노동자 인격을 완전히 소유할 수는 없고, 한편 노동자는 자신의 勞動力 교환과 再生産에 時空間的 制限을 가지고 그 범주 내에서 사회적 삶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앞에서 논의한 점들은 바로 우리의 현실에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현재 우리사회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문제의 이슈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지역문제는 특히 지역간 격차와 그에 따른 개발지역의 유지·발전이라는 두가지 이슈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60년대 이후 추진되어온 경제개발정책이 특정지역에 공업활동을 집중시켜 지역간 불균형발전을 초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지역간 격차는 정책의 혜택을 받은 공업활동이 집중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에 발생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업화된 지역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전술한 企業空間構造의 발달과 勞動力의 차등화

*본 論文은 筆者의 碩士學位論文임.
指導教授이신 朴杉沃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의 상당한 공업분산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격차 문제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대두되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空間的分業(spatial division of labor)³⁾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개별지역차원에서 보면 지역문제는 코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왜냐하면 지역격차의 양상이 이중적으로 변함에 따라 개별지역이 전체지역체제에서 점하는 위상이 보다 다변적이 되었을 뿐 아니라 여기에 지역 고유의 특수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역동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업화는 기존의 대도시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신공업도시 건설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신공업도시 건설정책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정책의 하나로서 인구지방정착을 유도하는 지방거점도시의 육성책으로 제시(신무호, 1985, p. 238)되었다. 여기서 개별지역의 문제는 전체지역체제에서의 균형된 위상과 인구(즉 지역주민)정책으로 대별되는 지역의 유지·발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공업도시를 개별지역으로 하여 이러한 이슈를 밝히는 작업은 기존의 공업화 정책에 대한 평가와 현재의 지역문제의 성격과악과 또한 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단위지역으로서의 地方勞動市場(local labor market)과 지역유지발전과 관련된 勞動力再生産의 문제가 도출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이 研究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전체적인 空間的分業현황과 그 메카니즘을 밝히려 한다. 일단단위에 의한 空間的分業을 밝힌 기존 研究와 종합하여 지역 雇傭構造를 통하여 空間的分業이 각 지역에 미친 영향과 위상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조업 전체, 섬유산업(SIC 321), 전기전자산업(SIC 383)을 분석 대상으로 채택하였다. 섬유·전기전자산업은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주도한 주요 산업부문으로서 우리나라 공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1. 구산업-신산업 2. 침체-성장 3. 노동집약적-자본집약적 4. 저기술-고기술 5. 자발적입지-정책적입지로 대별되는 양 산업의 성격이 산업부문의 특성을 가장 전형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양 산업의 성격의 차이는 양 산업에서의 노동력 수요의 차이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공간적 분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의 차이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섬유·전기전자산업은 공간적 분업을 설명하는 가장 전형적인 산업부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위의 空間的分業 맥락이 단위지역인 특정 地方勞動市場에 어떻게 투영되는가를 밝히고, 이 地方勞動市場 지역 내에서의 勞動力再生産過程을 파악하여, 개별 지방노동시장이 전체 지역체제에서 가지는 위상과 내적 역동성, 그리고 지방노동시장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통합관계를 밝히려 한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研究지역과 대상으로는 구미공업단지 섬유·전기전자산업을 택하였다. 구미工業團地는 1969년 경상북도의 지방공업개발장려 지정지구로 선정되어 섬유단지로 출발하였으나, 수출전략산업으로서의 전자공업진흥정책에 의하여 1971년 한국전자공업공단이 설립되어 수출산업장려지구가 됨에 따라 대규모의 본격적인 공단조성이 이루어졌다. 즉 구미공단은 지방자체내의 입지조정·분산화에 의해 입지한 섬유산업과 정부차원에서의 공업입지 정책에 의해 유인된 전기전자산업이 특화⁴⁾된 지역이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적 신공업도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미는 전술한 연구목적에 부합되는 적절한 사례지역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개별기업수준에서 空間的分業현황을 밝히려 한다. 즉, 구미에 분공장을 두고 있는 대기업을 택하여, 空間的分業의 인과관계를 대기업 空間構造와 内部勞動市場을 통해 밝히려 한다.

2. 研究節次 및 資料

앞에서 밝힌 研究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순서로 研究를 진행하려 한다.

첫째, 研究목적에 따른 研究分析의 이론적

를 제시할 것이다. 여기서는 각각의 이론들에서 이 研究의 흐름과 부합되는 부분들을 추출하여 정리하고 또한 각각의 쟁점들을 논의하려 한다. 특히 勞動市場의 경우는 이 研究의 대상인 제조업 勞動市場을 염두에 두고 서술하고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둘째, 구체적인 사례 研究이다. 여기에 이용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Ⅲ장의 空間的 分業현황을 밝히는데 사용되는 主 자료는 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조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 1988년(미간)의 내용을 KIST System 공한센터에 의뢰하여 研究에 적합한 형태로 변형시킨 자료이다.

Ⅳ장의 龜尾지역 사례연구에 사용한 主 자료는 설문지이다.

설문지는 다시 구미공단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것과 구미소재 고등학교·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회수현황은 기업체의 경우 94부(회수율 50.5%), 학교의 경우 7부(회수율 63.6%)이다. Ⅳ장의 기업사례 研究에 사용되는 자료는 A 기업의 본사와 A, B 기업의 구미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한 결과이다.

셋째, 研究分析을 통해 나온 결과를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와 해석, 그리고 새로운 논의점을 밝히려 한다.

II. 研究分析의 理論的 틀

1. 勞動市場의 特性

勞動市場이란 勞動力상품의 공급과 수요에 관한 정보가 교환되고, 그 결과로 勞動力이라는 상품이 매매되는 사회적 메카니즘이라 할 수 있다. 본래 상품이 아닌 노동은 자본주의 사회에 이르러 보편적인 상품의 형태를 취하게 되지만, 앞에서 논의한 노동자체가 지니는 고유한 성격으로 인하여 勞動市場은 다른 일반 상품시장과 구별되는 특성을 지니게 된다.

즉, 勞動市場은 구조적 측면에서는 斷層化된(혹은 분단된) 勞動市場을, 공간적 측면에서 범주화된 地方 勞動市場(local labor market)을 형성한다. 이러한 勞動市場의 특성

은 바로 空間的 分業을 발생시키는 메카니즘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1) 勞動市場의 斷層化

勞動市場의 불완전성(불완전 경쟁, 차별관행)과 勞動力의 이질성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전과 경제학자 Mill, Cairnes의 비경쟁집단원리로부터 시작하여 꾸준히 진행되어 왔는데, 제도학과에 이르러 分斷 勞動市場論이 대두되었다.

分斷 勞動市場理論이란 勞動市場을 단일의 경쟁적 연속적 시장이 아닌 상당히 다른 속성을 지닌 노동이 적어도 두개 또는 그 이상으로 분단(혹은 斷層化)되고 또 상호간에 移動이나 교류가 거의 단절된 별개의 시장으로 보는 입장이다. 다시 말하면 勞動市場은 현실적으로 임금시장(a wage market)보다는 직무시장(a job market)적 성격이 강하고 따라서 인종·민족·사회계층·성에 따라 직무시장으로 들어가는 통로(즉, 입직문)가 분단(斷層化)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기술변화 등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동은 勞動市場構造를 精神 勞動市場과 肉體 勞動市場(즉, 연구기술노동과 단순노동)으로 더욱 더 뚜렷하게 극화시켜 놓는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勞動市場구조에 대한 研究가 몇 편 진행되었는데, 斷層化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하에 斷層의 초점을 학력·성, 그중에서도 특히 학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歐美에서는 학력별 격차가 직종별 격차 속에 흡수되어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격차요인이 되어왔는데, 특히 대졸자와 고졸자 사이의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즉 학력에 의한 斷層化가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학력별 斷層化가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근대부문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구매자시장(buyers' market)이 형성되고 구매자(즉 기업가)는 가장 손쉬운 선별(screening)기능으로 학력을 택한다는 것, 또 전통적 관념에 의해 학력이 중시된다는 것(박세일, 1983, pp. 24-34) 등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것들 보다 더욱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라고 사료된다.⁵⁾ 선진歐美國가의 경우 점진적인 산업화 過程을 통해 근대적 산업기술 및 경영기술이 주로 勞動市場내부 즉 각 기업에서의 현장훈련(on-the-job-training), 경험, 연구개발 등을 통하여 개발·육성되어 온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근대적 기술이 하나의 체계화된 지식으로서 歐美에서 직접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인 대학등의 교육 過程을 통해 수입되는 過程을 밟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교육확대가 산업화의 진전보다 선행하여 勞動市場이 내부에서 축적되어 온 자생적 기술·기능을 팔고 사는 시장이 아니라 학력을 팔고 사는 시장의 성격을 지니게 되어(박세일, 1983, p. 36) 학력이 중요한 斷層化 요인이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전술한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勞動市場 斷層構造에 대해 그림 1과 같은 조각적 모형⁶⁾을 상정할 수 있다.

한편, 勞動市場의 분단적 구조는 內部勞動市場(internal labor market)을 형성시킨다. 內部勞動市場이란, 주로 대기업등의 하나의 직업장내의 노동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내부 노동자의 권리(취업·승진·移動·퇴직)는 外部勞動市場의 노동자로부터 배타적으로 보호(Doeringer & Piore, 1971, p. 2)받는 상태이고, 外部勞動市場과의 통로는 입직문과 퇴직문만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內部勞動市場의 형성은 기업별 勞動市場의 斷層化가 형성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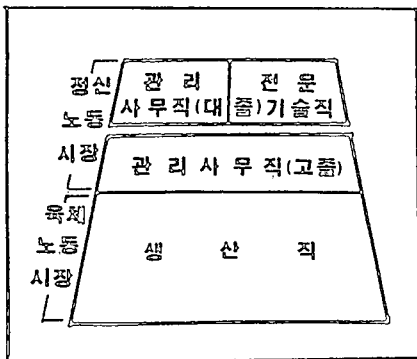


그림 1.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斷層構造

메카니즘을 설명(이효수, 1984, p. 135)하고 있다.

(2) 地方勞動市場의 形成

노동의 주체인 노동자는 매일의 삶을 통해, 작업장에서는 자신의 勞動力을 파고 가정과 사회적 영역에서는 자신의 勞動力을 再生産(Storper & Walker, 1983, p. 4; 1984, p. 24)한다. 따라서 주체인 인간에 의해 규정받는 勞動力 상품의 공급에는 時空間的 제약이 따르게 된다. 즉 노동자가 거주지 移動을 유발하지 않고 고용기회를 얻을 수 있는 空間的 범위(Lever, 1979, p. 91)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상 통근(journey-to-work)패턴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고, 여기에서 地方勞動市場(local labor market)의 개념이 도출된다.

구체적 단위지역으로서의 地方勞動市場의 지리적 범위(local labor market area)를 정의하는 研究는 여러가지 있으나 여기에서 Lever(1979)의 정의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들 수 있다.

첫째, 단위 勞動市場 내의 작업장에서의 고용된 노동자의 70% 이상이 그 지역내에 거주할 것.

둘째, 단위 勞動市場 내에서 거주하는 노동자의 70% 이상이 그 지역내에서 고용될 것.

셋째, 단위 노동시장의 인구는 10,000인 이상, 인구밀도는 1 acre 당 1인이상, 면적은 50,000 acre 이하일 것.

위에서 정의된 地方勞動市場을 圖示化한 모형이 그림 2이다.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형성된 地方勞動市場은 다른 勞動市場과 중복되지 않는(Lever, 1979, p. 92) 폐쇄적(Self-Containment)이고 독립적(Ball, 1980, p. 125)인 단위지역을 이루게 된다.

이러한 단위지역으로서의 地方勞動市場의 정의는, 일정 지역에 地方勞動市場이 형성되어 있는 여부를 밝히는 研究(Lever, 1979)에서 부터 또한 다른 研究를 위한 준비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후자의 예를 들면 勞動市場 간 勞動力 移動을 밝히는 研究, 地方 실업율을 분석하는 研究, 地方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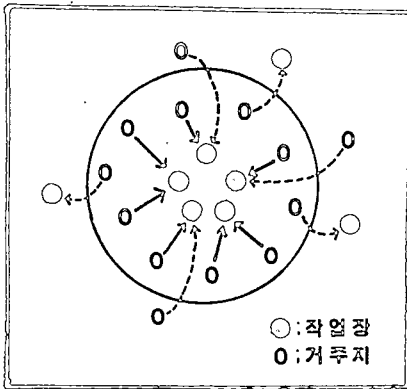


그림 2. 地方勞動市場의 模型

를 재조직하려는 작업, 전반적인 계획의 표적 집단 설정, 勞動市場 내의 勞動力 異動(labor turnover)을 밝히는 研究 등에 단위지역으로 사용되는 것을 들 수 있다.

한편 地方勞動市場의 형태와 규모는 상이한 勞動力 집단간에 다르게 나타난다(Dawson et al., 1986, p. 1238). 즉 앞에서 논의한 斷層的 勞動市場構造에 따른 차등적 성격의 勞動力은 지리적 공간에서 각각 상이한 공간극복 능력과 지리적 선호를 가진다는 사실이다.

2. 空間的 分業

앞에서 논의한 勞動市場의 斷層的 구조와 空間的 범주화(地方勞動市場의 형성)의 성격은 空間的 分業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을 형성한다. 즉 斷層的 勞動市場 구조에 따라 차등화된 기업의 勞動力 수요와 지역의 勞動力 공급을 일치시키려는 결과(Storper & Walker, 1984, p. 41), 차등적 勞動力이 상이한 지역에 특화되는 空間的 分業⁷⁾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勞動市場을 규정하는 것이 주로 기업의 勞動力 수요측면이듯이(김형기, 1988, p. 59) 空間的 分業을 주도하고 매개시키는 것은 기업이라 할 수 있다. 즉 분리된 기업운영 단위⁸⁾는 차등적 勞動力 수요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차등적 勞動力은 서로 다른 입지요인(location factor)으로 작용(Massey, 1984, p. 141)한다. 따라서 상이한 운영단위간에 空間的 분리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하여 空間的

分業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운영단위의 발달과 空間的 分化는 현대산업의 기술과 조직의 발달에 기인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조직과 산업기술의 발달은 空間的 分業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다. 기업조직과 산업기술의 발달은 사실상 분리할 수 없는 상호연관된 하나의 현상이나, 여기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양자를 나누어 각각에 의해 空間的 分業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하여 논의해 보겠다.

(1) 企業組織의 發達

현대 기업은 성장에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그것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존재하는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때문만이 아니라 현대 경제환경의 상호의존체계와 불확실성 하에서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업이 성장의 경제(economy of growth)를 추구해 왔기 때문(Lloyd & Dicken, 1977, pp. 354-356)이다.

이러한 성장전략을 수행하는 과정과 결과를 통하여 기업의 조직단위는 규모와 다양성이 증대(박삼욱, 1983a, p. 170)되고 여기에 따라 기업운영단위가 확대·분리되는 것 즉 기업의 空間構造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업조직의 발달은 경영기능과 생산기능의 분리를, 경영기능 내에서도 경영계층화를 발생시킨다. 이에 따라서 장기적이고 상위의 의사결정과 통제기능을 담당하는 본사(연합단위)와 하위의 의사결정과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공장(생산단위)이 분리 운영되는데, 여기서 본사의 상위경영계층 勞動力(conception)과 분공장의 하위경영계층 勞動力과 생산 勞動力(execution)은 차등적 입지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리하여 상층 勞動力을 수요하는 본사는 중심지역(core)에, 하층 勞動力을 수요하는 분공장은 주변지역(periphery)에 입지하는 空間的 分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본사 입지지역과 분공장 입지지역 간에서는 외부소유(external ownership)와 외부통제(external control)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분공장 지역에서보면 분공장은

외부소유이고 본사지역으로부터 외부통제를 받는데(박삼욱, 1983a, p. 172), 이러한 외부통제(혹은 외부소유)의 문제는 空間的 分業을 밝히는 研究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주제로, 지역발전과 관련하여 그 장단점⁹⁾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2) 産業技術의 發達

산업기술의 발달은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자본과 노동의 투여관계를 변화시키는데, 이것을 통해 새로운 노동과정¹⁰⁾이 창출되고(Massey, 1984, p. 24), 여기에 따라 고차의 정신노동(conception)인 研究開發勞動力에서부터 숙련(skilled) 勞動力, 하위육체노동(execution)인 비숙련(unskilled)에 勞動力에 이르기까지 분리폭이 커지고 엄격히 분단된 勞動力수요가 발생한다. 이러한 차등적 勞動力은 전술한 바와 같이 상이한 입지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勞動市場의 성격이 研究開發勞動力의 경우 개별(individual)의 성격, 숙련勞動力의 경우 가용량(availability)의 성격, 비숙련勞動力의 경우 절대보유량(reserves)의 성격(Massey, 1984, pp. 141-145)을 띠는 사실이다. 여기에 따라서 상층 기술勞動力을 수요로 하는 운영단위는 중심부(core)에, 하층 비숙련勞動力을 수요로 하는 운영단위는 주변부(periphery)에 입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空間的 分業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다시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첫째는, 산업부문간에서의 空間的 分業(sectoral division of labor)인데, 특정한 생산기술과 그에 따른 특정한 勞動力 수요와 결합된 산업부문이 空間적으로 특정지역에 집중하는 과정을 통해 空間的 分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19C의 산업특화지역의 형성이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Watts, 1987, p. 99). 그런데 이 경우는 分業의 의미보다는 단순히 고용패턴 차이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고 따라서 기업의 空間構造까지 고려하는 空間的 分業형태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최근의 첨단산업발달과 관련한 새로운 산업특화지역의 형성과 그로인한

상층 기술勞動力의 집중은 산업부문이 여전히 空間的 分業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입증해 준다.

둘째는, 산업부문 내에서의 空間的 分業(intra-sectoral division of labor)이다. 기술의 발달은 동일 산업부문 내에서 생산단계에 따라 차등적 勞動力 수요를 유발시키고, 그에 따라 技術的 分業(technical division of labor)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技術的 分業의 차등적 단계는 기업 空間構造의 발달¹⁰⁾을 통하여(Massey, 1984, pp. 74-76) 空間적으로 분화된다. 즉 空間的 分業이 발생하는 것이다.

(3) 空間的 分業의 綜合的 合意

空間的 分業은 국가적·국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힘이다. 앞의 논의에서 밝혔듯이 이러한 空間的 分業의 맥락은, 상층 勞動力(즉 상위 경영계층勞動力 또는 研究開發勞動力)을 수요하는 운영단위는 중심부에, 하층 勞動力(즉 생산勞動力 또는 미숙련勞動力)을 수요하는 운영단위는 주변부에 분리 입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같은 차등적 空間構造는 전체지역체제에서 지역계층화를 형성시킨다(Chapman & Walker, 1987, p. 99).

여기서 개별지역은 空間的 分業이 투영되는 일부분(Massey, 1984, p. 10)이 된다. 즉 개별지역은 전체지역체제에 흡수되어 지역체제의 한 부분을 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개별지역은 고유한 문화와 산업발달과정을 보유하고 있다. 空間的 分業이 개별지역에 투영될 때는 개별지역의 특수성이 함께 작용하게 되고 그리하여 개별지역 전체의 空間構造와 雇傭構造는 이러한 이중적 힘의 복합체로서 나타난다. 그리하여 개별지역의 고유한 특성은 일반적 경향의 일탈(deviation)로 취급될 것이 아니고 그것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구조를 이해하고 또한 그 효과를 평가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Massey, 1984, p. 7)이 된다.

空間的 分業은 기존의 地方勞動市場에 투영되기도 하고, 또한 새로운 地方勞動市場을 형

성하기도 한다. 이런 의미에서, Dicken(1976)은 空間的 分業의 연구에서 단위지역의 설정으로 地方勞働市場이 가장 적절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3. 地方勞働市場에서의 勞働力再生産

(1) 勞働力再生産課程

勞働力再生産이란 일반적으로 특정한 양과 질의 勞働力 상품을 재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勞働力再生産은 노동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작업장(즉 勞働過程)의 영역과는 분리되는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고 勞働市場의 공급 측면을 규정(김형기, 1988, pp. 55-59)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 노동자들이 일상의 생활속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이다. 즉 작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는 노동자가 작업장 밖의 독자적인 가정과 사회적 삶을 통해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말한다. 둘째, 새로운 노동력에 의해 대체되는 재생산과정인데, 이러한 勞働力再生産過程은 다시 두가지로 나뉘어 진다. 첫째는, 노동자의 출생·양육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자세대를 부양하는 과정(Bottomore et al., 1983, p. 101)인데, 勞働力の 유지(maintenance)와 쇄신(renewal)에 기여한다. 둘째는, 노동자의 교육過程인데 勞働力の 쇄신(Nichols ed, 1980, p. 112)에 기여한다. 이것은 다시 勞働市場내에서의 교육·현장훈련(on-the-job training)過程과 정규학교 교육過程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서 특히 학교교육의 경우 우리나라의 勞働市場이 학력을 팔고 사는 성격이 강함으로 인하여 가장 중요한 勞働力再生産 통로가 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학교교육 제도는 의사결정과 생산過程의 설계·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勞働力은 대체로 고등교육기관(대학)을 통해, 동질적이고 단순화된 勞働力은 초등·중등교육기관을 통해 분리 再生産되는데(김형기, 1988, p. 56) 이와같은 再生産過程의 분리는 바로 공급측면에서 勞働市場구조를 斷層化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2) 勞働力 移動

地方勞働市場 내에서 작업장(기업)의 勞働力 수요와 再生産 영역에서의 공급이 일치하지 않을 때 勞働力の 지역간 移動이 나타난다. 즉 기존 地方勞働市場에서 새로운 勞働力 수요가 발생했을 때, 위의 勞働力 대체再生産課程이 그 地方勞働市場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勞働力の 외부유입에 의해 수요가 충족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勞働力 移動은 勞働力을 적재적소에 배치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배무기, 1984, p. 127), 즉 勞働力이 보충·확대되는 메카니즘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勞働力の 사회적 再生産 비용을 줄이는 효과(Nichols ed., pp. 108-111)도 가져온다.

그러나, 이와같은 勞働力再生産過程을 구조적으로 勞働力 移動에 의존하게 될 때는 지역 사회와의 유기적인 결합은 물론이고 장차는 지역의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地方勞働市場에서의 勞働力再生産過程은 地方勞働市場의 유지와 재구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전술한 이론적 흐름을 종합하여 그림 3과 같은 研究분석의 틀을 도출할 수 있다.

III. 우리나라의 空間的 分業現況

1. 既存研究의 檢討

우리나라의 空間的 分業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기업運營單位の 空間的 分화 현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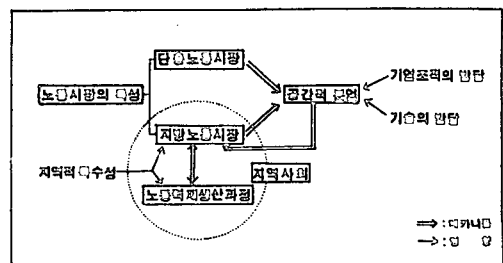


그림 3. 研究分析의 틀

밝히는 작업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空間的 分業이 본격화된 것은 80년대에 들어서이고 그 이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삼옥(1985), 김진석(1989)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本社와 분리된 공장을 갖는 기업의 비중은 1982년 9.2%에서 1986년에는 10.1%로 증가하고 있고 本社와 분리된 시기도 80년대 이후가 48.1%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종업원 500명 이상인 대기업의 경우는 1986년에는 88.6%가 本社와 공장이 분리되어 있어, 空間的 分業은 확실히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규모를 고려할 때 空間的 分業이 우리나라 공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보편적이며 유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위의 연구들에서 本社와 分工場의 지역적인 연계를 통해서 空間的 分業현황을 살펴보면(표 1), 本社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分工場은 대도시주변지역이나 기타지역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空間的 分業은 공업의 분산화와 관련이 있는 현상임을 알 수 있는데, 本社지역이 서울일 경우 分工場의 분산화 범위가 전체 지역에 미치는 반면 地方대도시(부산, 대구)의 경우 分工場의 분산화 범위가 주변지역(경남, 경북)에 그치며 그 영향도 서울보다 오히려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서울은 운영단위의 空間的 分化를 통하여 모든 지역의 절대적인 최상의 통제중심지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연구결과를 개별지역 전체고용량(종업원수)(표 2)과 비교하여 보면 대기업의 압도적인 本社·공장의 분리로 인하여 空間的 分業의 영향이 개별지역 雇傭構造의 상당한 부분에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경남·경북의 경우는 대기업의 分工場이 지역雇傭構造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

표 1. 本社와 분리된 공장의 지역적 연계(1986)

단위:개소

	서울	인천	경기	부산	경남	대구	경북	기타	계	비율(%)
서울L	51	39	133	43	66	12	40	92	476	81.8
S	271	128	857	63	83	54	79	189	1,724	80.8
인천L	2	1	6	0	2	-	0	1	12	2.1
S	8	7	3	1	0	-	2	3	24	1.1
경기L	8	2	7	2	0	2	4	5	30	5.2
S	21	1	47	4	10	0	3	2	88	4.1
부산L	0	-	1	16	10	1	2	1	31	5.3
S	4	-	4	30	37	1	4	2	82	3.8
경남L	1	-	2	1	6	0	0	1	11	1.9
S	3	-	2	4	2	1	1	1	14	0.7
대구L	0	-	0	0	0	4	1	0	5	0.9
S	1	-	1	1	2	51	27	1	84	3.9
경북L	0	-	1	-	0	0	4	1	6	1.0
S	6	-	1	-	1	4	14	4	30	1.4
기타L	0	0	0	-	0	-	0	11	11	1.9
S	6	1	4	-	1	-	3	83	98	4.6
계 L	62	42	150	62	84	19	51	112	582	100.0
S	320	137	919	103	157	111	133	285	2,144	100.0
비율L	10.7	7.2	25.8	10.7	14.5	3.3	8.8	19.2	100.0	
(%)S	14.9	6.4	42.9	4.8	7.3	5.2	6.2	13.3	100.0	

*이하 L: 500인 이상, S: 499인 이하

자료: 김진석(1989) p. 16의 내용을 필자가 정리한 것임

표 2. 지역별 사업체 수 및 종업원수(1986)

(단위 : 인, %)

	사 업 체 수			종 업 원 수		
	L	S	계	L	S	계
서울	97(0.6)	15146(99.4)	15243	119840(22.2)	419395(77.8)	539235
인천	61(2.5)	2427(97.5)	2488	82128(40.9)	118920(59.2)	201048
경기	110(1.1)	10363(98.9)	10473	148949(25.6)	433669(74.4)	582618
부산	110(1.9)	5621(98.1)	5731	174612(42.5)	236194(57.5)	410806
경남	120(4.5)	2559(95.5)	2679	217542(64.2)	121246(35.8)	338788
대구	18(0.5)	3978(99.5)	3996	22061(12.9)	149639(87.2)	171700
경북	46(2.3)	1967(97.7)	2013	76699(47.3)	85360(52.7)	162059
기타	94(1.3)	7346(98.7)	7440	116141(35.0)	215958(65.0)	332099
계	656(1.3)	49407(98.7)	50063	957972(35.0)	1780381(65.0)	2738353

자료 : 광공업 통계 조사 보고서

어서 空間的 分業의 영향이 가장 탁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2. 地域雇傭構造를 통한 空間的 分業現況

이 장에서는 각 개별지역의 총체적인 雇傭構造지표를 통하여 空間的 分業 맥락이 전체 지역체계에서 雇傭構造 차등화를 나타내는 현황과 또 空間的 分業이 투영된 결과로 나타나는 개별지역의 총체적인 雇傭構造가 전체지역 체계에서 가지는 특수한 위상을 밝히려 한다.

여기서 雇傭構造를 파악하는 지표로는 職種別·學歷別·技術技能程度別 노동자수를 사용하였다. II장에서 논의하였듯이, 직종과 학력은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단층화를 형성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고, 따라서 이들 지표를 통하여 上層勞動力(관리·사무직, 전문기술직, 대졸이상)과 下層勞動力(생산직, 고졸이하)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기술정도 지표를 통하여는 노동자¹¹⁾의 기술정도와 숙련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지역구분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업지역구분이라 할 수 있는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부산, 경남), 대구권(대구, 경북), 기타지역으로 나누었고, 이것을 통해 각 권역별 위상과 권역내 위상을 파악할 수 있다.

(1) 製造業全體의 雇傭構造

제조업전체의 지역별 雇傭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별 職種別 雇傭構造(표 3)를 보면, 먼저 관리직·사무직의 경우 서울의 立地係數¹²⁾(location quotient : 이하 LQ로 명명함)가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나는 반면, 서울·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는 거의 1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地方대도시(부산, 대구)는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 의사결정·통제기능 勞動力이 특화되어 있음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전문기술직의 경우 관리·사무직과 같은 뚜렷한 대비는 나타나지 않으나 여전히 수도권 지역이 높은 LQ 값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地方대도시의 경우 여전히 낮은 값(0.58, 0.73)이 나타나는 반면, 그 주변지역 즉 대기업의 分工場이 지역雇傭構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경남·경북의 경우는 높은 수치(1.13, 1.18)를 형성하고 있다. 생산직의 경우는 앞의 경향과 반대로 나타난다.

둘째로, 지역별 學歷別 雇傭構造(표 4)를 보면, 그 전체적 경향은 職種別 雇傭構造와 거의 유사하나 그 양상은 더욱 선명히 나타나고 있다. 즉, 上層勞動力인 대졸 이상의 경우 LQ 값이 최고 높은 서울(1.69)과 최고 낮은 地方대도시(0.44, 0.48) 간의 차이가 뚜렷하고,

표 3. 지역별 職種別 雇傭構造와 立地係數(제조업 전체)

단위 : 인(LQ)

	관리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생산직	계
수도권	80748(1.16)	268693(1.26)	34524(1.07)	981132(0.93)	1365097
서울	40384(1.31)	150530(1.59)	15172(1.06)	399216(0.85)	605302
인천	9108(0.96)	24695(0.85)	5232(1.19)	147378(1.03)	186413
경기	31256(1.07)	93468(1.04)	14120(1.04)	434538(0.99)	573382
부산권	37900(0.90)	97786(0.76)	16451(0.85)	669552(1.06)	821689
부산	16757(0.77)	46005(0.69)	5849(0.58)	356668(1.09)	425279
경남	21143(1.05)	51781(0.84)	10602(1.13)	312884(1.03)	396410
대구권	14773(0.84)	39256(0.73)	7560(0.93)	281857(1.07)	343446
대구	8065(0.84)	23063(0.79)	3217(0.73)	153186(1.06)	187531
경북	6708(0.84)	16193(0.67)	4343(1.18)	128671(1.07)	155915
기 타	13662(0.76)	44729(0.81)	9589(1.15)	286249(1.05)	354229
계	147083	450464	68124	2218790	2884461

* , ** : 이하 사무직은 원 자료의 사무 및 관리직, 판매직, 서어비스직을 생산직은 생산 및 관련직, 운수장비 운전직, 단순노무자를 포함시킨 수치다.

자료 : 제조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표 4. 지역별 學歷別 雇傭構造와 立地係數(제조업 전체)

단위 : 인(LQ)

	중졸이하	고 졸	초대(전문)졸	대졸이상	계
수도권	527472(0.91)	673254(1.03)	56181(1.11)	108187(1.31)	1365094
서울	228506(0.89)	288282(1.00)	26448(1.18)	62063(1.69)	605299
인천	82290(1.04)	87136(0.98)	6608(0.96)	10380(0.92)	186414
경기	216676(0.89)	297836(1.09)	23125(1.09)	35744(1.03)	573381
부산권	362058(1.04)	397316(1.01)	25486(0.84)	36731(0.74)	821591
부산	220481(1.22)	181413(0.89)	11946(0.76)	11439(0.44)	425279
경남	141577(0.84)	215903(1.14)	13540(0.92)	25292(1.05)	396312
대구권	168889(1.16)	149896(0.91)	11753(0.92)	12909(0.62)	343447
대구	100332(1.26)	76024(0.85)	5720(0.82)	5455(0.48)	187531
경북	68557(1.04)	73872(0.99)	6033(1.04)	7454(0.79)	155916
기 타	164987(1.10)	158535(0.94)	13585(1.03)	17129(0.80)	354227
계	1223406	1379001	107005	174947	2884359

*여기서 중퇴자는 차하급 졸업으로 처리되었다.

자료 : 제조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반대로 下層勞動力인 중졸 이하의 경우 LQ 값이 최고 높은 地方대도시(1.22, 1.26)와 최고 낮은 서울(0.89) 간의 차이가 역시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서울은 고학력勞動力이, 地方대도시는 저학력勞動力이 상대적으로 특

화되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별 技術技能程度別 雇傭構造(표 5)를 보면, 먼저 기술사의 경우는 대구·서울·인천과 같은 기존 대도시지역에서 높은 LQ 값이 나타난다. 그리고, 기사 1급,

표 5. 지역별 기술기능정도별 雇傭構造와 立地係數(제조업 전체)

단위 : 인(LQ)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사	기타자격증	무자격증	계
수도권	2629(1.16)	1943(0.96)	3347(0.96)	58550(0.94)	77111(1.03)	895290(1.00)	1058870
서울	1765(1.90)	4910(0.97)	4600(0.81)	20632(0.81)	34555(1.13)	365801(1.00)	432263
인천	348(1.05)	1894(1.05)	1776(0.88)	9354(1.03)	9705(0.89)	130908(1.01)	153985
경기	516(0.51)	5139(0.93)	6971(1.13)	28564(1.02)	32851(0.98)	398581(1.00)	427622
부산권	1281(0.85)	8050(0.98)	7611(0.83)	45218(1.09)	47833(0.96)	590298(1.00)	700291
부산	549(0.70)	2057(0.48)	2420(0.51)	9196(0.42)	16925(0.65)	335414(1.09)	366561
경남	732(1.02)	5993(1.54)	5191(1.19)	36022(1.83)	30908(1.31)	254884(0.91)	333730
대구권	884(1.41)	2771(0.81)	3644(0.95)	17840(1.03)	18396(0.89)	248543(1.01)	292078
대구	718(2.15)	969(0.53)	1550(0.76)	4197(0.46)	9612(0.87)	138374(1.06)	155420
경북	166(0.57)	1802(1.13)	2094(1.17)	13643(1.69)	8784(0.91)	110169(0.96)	136658
기 타	252(0.39)	4765(1.56)	6157(1.56)	17447(0.98)	23262(1.09)	250201(0.98)	302084
계	5046	27529	30759	139055	166602	1984332	2353323

* : 이하 기능사는 원자료의 기능장, 기능사 1, 2급, 기능사보를 포함한 수치이다.

** : 여기서 합계는 원자료의 해당없음 란을 뺀 수치이다.

자료 : 제조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기사 2급, 기능사의 경우는 LQ 값이 경남(1.54, 1.19, 1.83), 경북(1.13, 1.17, 1.6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무자격증의 경우는 地方大도시에서 가장 높은 LQ(1.09, 1.06)값이 나타난다. 따라서 고급 기술勞動力은 대도시 지역에, 숙련勞動力은 대기업 分工場입지지역에, 비숙련勞動力은 地方大도시지역에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섬유·전기전자산업의 雇傭構造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섬유·전기전자산업은 전체 제조업 고용의 각각 14.5%, 15.8%를 차지하는 만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제조업부문이다. 이러한 섬유산업¹³⁾과 전기전자산업¹⁴⁾의 지역적인 분포를 보면, 섬유의 경우는 전체지역에 비교적 고루 분포되어 있으며 그중 특히 대구권지역에 34.1%로 가장 집중해 있는 반면 전기전자의 경우는 수도권지역에 60.8%나 집중해 있다.

여기서 각 산업의 지역별 고용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직종별 雇傭構造(표 6)를 보면, 관리직·사무직은 섬유의 경우 서울이 일방적으로

로 높은 LQ 값(1.73, 2.35)을 나타내는 반면, 전기전자의 경우 섬유만큼 뚜렷한 차이는 없으나 역시 수도권 지역에 1 이상의 높은 LQ 값이 나타난다. 전문기술직은 섬유의 경우 대구권에 전기전자의 경우 서울·수도권에 1 이하의 낮은 LQ 값이 나타난다. 그런데, 이 조사는 사업체만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소는 제외되었다.

여기서 '한국기술연구소 총람(1987)'을 통하여 기업연구소의 고용구조를 포함시켰을 경우, 섬유·전기전자의 연구직 수의 각각 52.0%, 95.9%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해 있고 특히 경기에 52.0%, 63.4%가 집중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도권, 특히 경기의 전문기술직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섬유는 서울에 일방적으로 전기전자는 수도권지역에 上層勞動力이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둘째로, 學歷別 雇傭構造(표 7)를 통해서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즉 대졸 이상의 노동력은 섬유의 경우 서울에 일방적으로 높은 LQ 값이, 전기전자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에만 1 이상의 높은 LQ 값

표 6. 지역별 職種別 雇傭構造의 立地係數(섬유·전기전자산업)

	섬		유		전		기		전		자	
	관리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생산직	관리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생산직	관리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생산직
수도권	1.31	1.53	0.91	0.92	1.06	1.15	1.10	0.97				
서울	1.73	2.35	0.99	0.79	1.15	1.21	0.95	0.96				
인천	0.91	0.61	1.66	1.05	1.05	0.87	1.25	1.01				
경기	1.03	1.02	0.71	1.00	0.99	1.17	1.17	0.96				
부산권	0.96	0.92	0.81	1.02	1.18	0.75	0.72	1.04				
부산	1.13	0.76	1.08	1.03	1.16	1.11	0.35	1.00				
경남	0.79	1.08	0.53	1.00	1.18	0.67	0.81	1.05				
대구권	0.99	0.80	1.36	1.02	0.54	0.75	1.27	1.05				
대구	1.02	0.85	1.41	1.01	0.51	1.45	0.77	0.96				
경북	0.89	0.65	1.24	1.05	0.55	0.61	1.37	1.08				
기 타	0.55	0.57	0.65	1.08	0.69	0.81	0.69	1.06				

자료: 제조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표 7. 지역별 學歷別 雇傭構造의 立地係數(섬유·전기전자산업)

	섬		유		전		기		전		자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이상
수도권	0.91	1.09	1.17	1.62	0.92	1.00	1.13	1.18				
서울	0.90	1.00	1.31	2.88	0.90	1.00	1.28	1.16				
인천	1.14	0.78	1.25	0.91	1.13	0.96	0.91	0.92				
경기	0.87	1.22	1.05	0.71	0.88	1.01	1.07	1.24				
부산권	1.02	0.98	0.94	0.85	1.21	0.98	0.62	0.66				
부산	1.05	0.93	0.81	0.98	1.33	0.90	1.18	0.64				
경남	0.99	1.03	1.07	0.71	1.19	1.00	0.49	0.66				
대구권	1.02	0.99	1.04	0.73	1.04	0.99	0.90	0.99				
대구	1.03	0.97	0.94	0.68	1.27	0.92	1.29	0.60				
경북	0.98	1.02	1.31	0.85	0.99	1.01	0.83	1.07				
기 타	1.10	0.89	0.69	0.60	1.02	1.02	1.11	0.60				

자료: 제조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이 나타나고, 반대로 중졸이하의 노동력은 양산업 모두 수도권 지역에만 1 이하의 낮은 값이 나타나며, 또한 각 LQ 값의 차이가 직종의 경우보다 더욱 뚜렷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술가능정도별 雇傭構造(표 8)를 보면 기술사는 섬유·전기전자 공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지역에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기사 1, 2급, 기능사는 섬유의

경우 주로 대구권에, 전기전자의 경우 경기·경북지역에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지역은 역시 각 산업이 집중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무자격증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향을 찾기가 힘들다. 단지, 경북이 가장 낮은 LQ 값(0.98, 0.88)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표 8. 지역별 기술기능정도별 雇傭構造의 立地係數(섬유·전기전자산업)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능사		기타자격증		무자격증	
	섬유	전기	섬유	전기	섬유	전기	섬유	전기	섬유	전기	섬유	전기
수도권	0.94	1.16	1.01	1.02	0.89	0.91	1.11	0.85	1.22	1.12	0.99	1.01
서울	1.46	1.72	1.47	1.13	0.81	0.80	0.93	0.61	1.60	1.04	0.97	1.04
인천	1.02	2.06	0.96	0.69	0.57	0.80	1.30	0.70	1.31	0.85	0.98	1.05
경기	0.58	0.60	0.72	1.02	0.99	1.01	1.20	1.05	1.03	1.24	1.00	0.98
부산권	1.21	1.05	0.93	0.77	0.54	1.01	0.59	1.00	1.11	0.79	1.00	1.01
부산	1.85	0.95	0.99	0.48	0.55	1.42	0.59	0.97	1.60	1.73	0.98	0.96
경남	0.60	1.08	0.86	0.84	0.53	0.91	0.59	1.02	0.64	0.57	1.03	1.03
대구권	1.27	0.74	1.00	1.73	1.26	0.98	1.30	2.13	0.97	0.74	0.99	0.89
대구	1.54	1.53	1.05	0.66	1.44	1.01	0.89	0.64	0.97	2.34	1.00	0.96
경북	0.59	0.59	0.89	1.92	0.79	0.98	2.32	2.40	0.98	0.45	0.98	0.88
기타	0.47	0.10	1.04	0.58	1.08	1.58	0.66	0.67	0.60	0.94	1.02	1.03

자료: 제조업 임금 실태 조사 보고서

(3) 綜合的 含意

지금까지 각 개별지역의 총체적인 雇傭構造를 통해 空間的 分業의 맥락이 지역 雇傭構造 차등화를 이루는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運營單位의 空間的 分화를 밝힌 기존의 연구와 종합하여 空間的 分業이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메카니즘과 개별지역의 위상을 해석하려 한다.

분리된 기업의 本社가 80% 이상이나 집중해 있는 서울은 그 雇傭構造에서도 관리사무직, 대졸이상의 上層勞動力이 여타 지역과 큰 차이로 특화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최상위 의사결정·통제중심지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수도권 지역은 위의 上層勞動力이 서울에 미치지지는 못하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모두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의사결정·통제기능이 수도권 지역범위(특히, 경기)로 확산되는 확대된 서울(황주성, 1987, p. 36)의 의미가 강하여 부여된다. 그러나, 이 지역은 분리된 本社의 입지가 아닌 상대적으로 雇傭構造가 양호한 서울 本社지역의 分工場이라든지, 고도의 산업부문(예를들면 전기 전자산업)의 입지에 의한 것인만큼 그 의사결정 기능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지역은 기술

적 分業단계에서는 가장 양호한 雇傭構造를 지니고 따라서 상위계층을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기술수준이 높은 산업·기업들이 집중 입지해 있음은 물론, 특히 기업연구소의 절반 이상이 입지해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경향은 최근 기업연구소의 급격한 팽창으로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수도권 지역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공업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부산권, 대구권의 경우는 앞의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雇傭構造를 지니고 있다. 즉, 의사결정기능보다는 생산기능이 탁월한 지역계층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권역 내에서는 중심도시(부산, 대구)와 주변지역(경남, 경북)은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먼저, 기존의 공업집적지이며 주변지역보다 분리된 本社를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地方대도시의 경우 거의 모든 면에서 가장 취약한 雇傭構造를 지니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分工場이 많이 입지해 있는 주변지역의 경우는 地方대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雇傭構造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직과 숙련勞動力은 수도권 지역과 거의 맞먹는 혹은 그 이상의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어 기술적 分業단계에서는 상위계층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나라 空間的 分業의 메카니즘에 대한 두가지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空間的 分業의 영향이 지역전체의 雇傭構造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신공업지역(경남, 경북, 경기)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공업지역인 대도시(부산, 대구, 인천)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雇傭構造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空間的 分業 맥락이 크게 서울 本社와 地方 分工場이라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따라서 막대한 중앙 대기업(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정책)의 지원을 받는 새로운 대기업의 分工場이 地方本社기업보다 훨씬 양호한 雇傭構造를 형성하기 때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기존의 地方本社기업의 雇傭構造가 이제 상당한 재구조화를 요할 만큼 취약하다는 사실을 또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上層勞動力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과 함께 각 산업의 집중지역 그리고 대규모 分工場이 많은 지역에 역시 높은 비중이 나타나 기술적 分業단계에서는 뚜렷한 중심계층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근대적 산업기술을 선진국에서 도입하여 사용하기 때문에 기업에 필요한 기술의 성격이 혁신보다는 생산과정에서의 적용이라는 측면이 강하고 따라서 전문기술직은 오히려 생산기능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통하여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급격한 기업연구소의 신설과 관련하여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인력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역시 수도권 지역 특히 경기지역에 집중하고 따라서 이 지역이 질적인 측면에서 중심계층을 형성하고 또 그 경향이 가속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섬유산업과 전기전자산업은 각 산업의 내재한 속성과 그 전개과정으로 인하여 그 부분적인 양상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섬유산업의 경우는 서울로의 上層勞動力 집중이 더욱 심하게 나타나, 서울과 地方이라는 단선적 계층구조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그 동안 섬유산업의 분산화가 상당히 진전되어 왔고, 그것이 서울에서부터 생

산기능의 地方이전이라는 형태를 띠어 왔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반면 전기전자산업의 경우는 上層勞動力의 집중이 서울·수도권으로 확산되는 확대된 서울(황주성, 1987, p. :36)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역간의 雇傭構造 차이도 섬유산업과 같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전기전자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정책적 입지점이 선정되어 空間的 分業의 형태가 집중지역의 확대(황주성, 1987, p. 36)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분산화도 생산기능의 완전이전이 아닌 생산기능의 기술적 分業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IV. 空間的 分業에 따른 地方勞動市場의 特性和 勞動力再生産過程 — 龜尾工業團地의 纖維·電氣電子産業을 中心으로

1. 龜尾地方勞動市場의 形成과 特性

여기서는 먼저 연구분석을 위한 단위지역으로 地方勞動市場地域(local labor market area)을 설정하려 하는데, II장에서 논의한 Lever의 정의를 사용하여 분석하려 한다. 분석에 앞서, 자료의 한계 때문에 정확한 권역의 설정이 어려워 각 행정구역을 지역단위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따라서 정확한 지역범위의 설정보다는 구미에 地方勞動市場이 形成되어있느냐 하는 사실과, 形成되었다면 그것이 대체로 어떠한 공간적 범위와 특성을 나타내는가를 밝히는데 의의를 둔다.

먼저, 龜尾工業團地內 업체에 고용된 전체 노동자들의 居住地를 살펴보면(표 9), 구미시에 노동자의 74.2%가 거주하고 이것은 95% 신뢰구간에서 73.8-74.6%로 나타나 일단 Lever의 정의¹⁵⁾ 첫째조건을 구미시가 만족시킨다. 한편, 구미시에 거주하는 2차 산업인구는 1989년 시정기본통계에 의하면 64,020명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95% 신뢰구간에서 이중 55,514-56,116¹⁶⁾명은 적어도 구미시에 있

표 9. 직종별 노동자의 居住地

단위 : 인(%)

	관리사무(대졸)	관리사무(고졸)	전문기술	생 산	계
구 미	1064(68.6)	2757(76.8)	3127(83.7)	28894(73.6)	35842(74.2)
인접시군	55(3.5)	256(7.1)	111(3.0)	7028(17.9)	7450(15.5)
대 구	358(23.1)	499(13.9)	469(12.6)	2277(5.8)	3603(7.5)
기타경북	32(2.1)	68(1.9)	16(0.4)	967(2.5)	1083(2.3)
서 울	23(1.5)	3(0.1)	8(0.2)	2(0.0)	36(0.1)
기 타	19(1.2)	7(0.2)	4(0.1)	68(0.2)	98(0.2)
계	1551(100)	3590(100)	3735(100)	39236(100)	48112(100)

*전문기술직은 이공계 대졸이상(여기서 대졸이상은 전문대를 포함시킴)으로 정의하여 사용하였다.

**인접시군은 김천, 금릉, 선산, 칠곡을 말한다.

자료 : 설문지

는 공단에 취업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시에 거주하는 노동자의 86.7%-87.7%는 구미시에 고용되어 있어 Lever의 정의 둘째 조건을 역시 구미시가 만족시킨다. 마지막으로 구미시의 인구는 190,132명, 면적은 31,136 acre, 인구밀도는 acre당 6.1명으로 Lever의 정의 셋째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따라서 구미시만으로 자체적인 地方勞動市場이 形成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렇게 정의된 구미地方勞動市場은 앞으로의 분석에 단위지역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구미지방노동시장의 고용구조¹⁷⁾는 III장에서 분석한 경북의 雇傭構造와 그 전체적 맥락에서 일관된 特性을 보이고 있다. 즉 관리사무직의 비율(10.7)은 전국평균(16.7)보다 낮으나, 전문기술직(7.8)¹⁸⁾의 비율은 전국평균(2.2)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II장에서 논의했듯이 地方勞動市場의 雇傭構造는 地方勞動市場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구미地方勞動市場은 勞動力의 성격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먼저 상층勞動力인 관리사무직(대졸이상)¹⁹⁾과 전문기술직의 居住地를 보면, 구미와 대구를 합한 비율이 각각 91.6%, 96.3%로 양 직종이 모두 도시지역으로 勞動市場형태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층노동력의 고차중심도시지향성과 높은 공간극복능력을 볼 수 있다.

반면, 생산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접시군의 비율이 높아 낮은 공간극복능력을 보이고 따라서 철저히 거리채감적인 地方勞動市場 형태를 나타낸다. 관리사무직(고졸이하)²⁰⁾의 경우는 상층노동력과 생산직 노동력의 중간적

2. 空間的 分業에 따른 尾地方勞動市場의 企業空間構造와 雇傭特性

空間的 分業을 매개시키는 것은 기업이다. 따라서 空間的 分業이 地方勞動市場에 투영되어 나타나는 雇傭構造는 결국 기업의 勞動力 수요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미地方勞動市場내의 기업체를 空間的 分業을 발생시키는 변수(산업부문, 소유)와 기업별 勞動市場 단층화를 발생시키는 변수(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기업유형에 따라 기업空間構造와 雇傭構造·雇傭流動을 분석함으로써 空間的 分業이 구미地方勞動市場에 투영되는 메카니즘과 그 결과 나타나는 구미地方勞動市場 내의 역동성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설문응답한 기업 중 소유特性상 本社가 구미地方勞動市場²¹⁾ 내에 있는 지역내 소유기업이 64개소, 本社가 여타지역에 있는 地域外所有기업²²⁾이 36개소로 파악되고(표 10), 또 地域內所有기업²³⁾ 중 分工場을 두는 기업이 5개소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미는 本社와 공장의 분리도(42%)가 전국평균(10.1%)을 훨씬 상회하고 그 결과 지역외소유의 고용비

표 10. 지역내소유·지역외소유기업수 및 외부본사·공장현황

단위:개소

		지역내소유	외부공장	지역외소유	외 부 본 사			지역
		기업수	기업수	기 업	서울	인천·경기	부산	대구
섬 유 대	소	19		5	5			
	중	14	2	15	9	1		5
	대	1		2	2			
전 전 기 자 대	소	12		1	1			
	중	15	3	6	4	1	1	
	대	3		7	6	1		
소 섬 유 계 전기전자	소	34	2	22	16	1		5
	중	30	3	14	11	2	1	
계		64	5	36	27	3	1	5

*이하 소기업은 종업원 1-99인
 중소기업은 종업원 100-999인
 대기업은 종업원 1000인 이상으로 분류한다.
 자료: 설문지

표 11. 기업유형별 雇傭構造

단위:인(%)

		관리사무직	관리사무직	전 문	생 산 직	계	기업수
		(대출)	(고졸)	기술직			
섬 유 대	지역 소	28(3.0)	84 (9.1)	21 (2.3)	787(85.5)	920(100)	18
	내 중	75(2.3)	274 (8.4)	37 (1.1)	2885(88.2)	3271(100)	14
	소유 대	15(0.9)	139 (8.5)	10 (0.6)	1466(89.9)	1630(100)	1
유 외 소	지역 소	17(7.7)	30(13.5)	5 (2.3)	170(76.6)	222(100)	4
	외 중	48(1.0)	263 (5.6)	128 (2.7)	4240(90.6)	4679(100)	15
	소유 대	140(2.8)	227 (4.6)	313 (6.3)	4261(86.2)	4941(100)	2
전 기 자 대	지역 소	39(5.8)	103(15.2)	23 (3.4)	511(75.6)	676(100)	12
	내 중	271(8.3)	361(11.1)	116 (3.6)	2508(77.7)	3256(100)	13
	소유 대	242(4.9)	430 (8.8)	389 (8.0)	3832(78.3)	4893(100)	3
소 섬 유 계 전기전자	지역 소	1(1.1)	7 (8.0)	2 (2.3)	77(88.5)	87(100)	1
	외 중	98(4.2)	255(11.0)	112 (4.9)	1843(79.9)	2308(100)	5
	소유 대	577(2.7)	1417 (6.7)	2579(12.1)	16656(78.5)	21229(100)	6
계	지역 내	323(2.1)	1017 (6.5)	514 (3.3)	13809(88.2)	15663(100)	54
	지역 외	1228(3.8)	2573 (7.9)	3221 (9.9)	25427(78.4)	32449(100)	40
계	지역 내	670(4.6)	1391 (9.5)	596 (4.1)	11989(81.9)	14646(100)	61
	지역 외	881(2.6)	2199 (6.6)	3139 (9.4)	27247(81.4)	33466(100)	33
계		1551(3.2)	3590 (7.5)	3757 (7.8)	39236(81.6)	48112(100)	94

자료: 설문지

중이 지역전체의 69.6%(표 11)를 차지하고 있어, 공간적 분업의 영향이 매우 지배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또 분리된 本社보다는 分工場의 입지가 탁월하여 의사결정기능보다는 생산기능이 탁월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地域外所有의 本社지역을 보면, 서울이 75%로 역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다만 섬유산업²⁴⁾의 경우 대구 本社가 5개소로 나타나 지역권내 소유도 상당히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즉 섬유산업의 지역권내 분산화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사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보유율에서 전기전자(38.6)와 地域內所有(31.6)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지사소재지역을 보면, 지사를 보유하는 지역내 소유는 100% 서울에 지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박삼욱(1985)의 연구에서도 확인되는데, 따라서 서울에 입지한 지사의 경우는 地方소재기업의 本社기능의 상당부분을 담당(박삼욱, 1985, p. 214)하여 本社가 地方에 있음으로 해서 얻는 불이익을 보완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기능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보유율에서 전기전자(61.4)와 地域外所有(50.0)가 높게 나타나, 이들 기업이 높은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보유형태를 보면 地域內所有는 연구개발부서로 地域外所有는 독립연구소로 보유하고 있어 그 질적인 측면에서 地域外所有가 탁월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유지역을 보면 연구개발부서는 대부분, 독립연구소는 50%가 구미지역내에 존재하고 따라서 구미지역은 생산기능이 탁월하지만은 그 기술수준과 기술잠재력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勞動市場은 貯量(stock)으로서의 勞動市場 特性과 流量(flow)으로서의 勞動市場 特性(Clark, 1980b, p. 218)을 지니고 있다. 전자는 雇傭構造에 후자는 雇傭流動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먼저, 기업 유형에 따른 雇傭構造는 표 11과 같다. 우선 전기전자와 지역외소유는 섬유·지역내소유보다 기업규모가 대규모이며, 더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雇傭構造의 特性을 살펴보면, 관리사무직의 비율은 전기전자(11.7), 地域內所有(14.1)가 전문기술직의 비율은 전기전자(9.9), 地域外所有(9.4)가 높게 나타난다. 그런데 地域外所有 雇傭構造의 特性은 바로 앞에서 분석한 구미地方勞動市場 雇傭構造의 特性과 동일하다. 따라서 구미地方勞動市場의 雇傭構造를 지배하고 또한 特性을 결정짓는 것은 대규모의 地域外所有기업, 다시말하면 대기업의 分工場임이 밝혀지고 있다.

한편, 勞動市場이라는 것은 한 시점의 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노동자들이 異動(turnover)하거나 移動(mobility)하거나 비경제활동인구화하는 등 끊임없는 운동이 일어난다(배무기, 1984)이다. 따라서 勞動市場의 流量으로서의 特性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雇傭構造에 대응하여 雇傭流動이라 명명하고, 이러한 雇傭流動의 特性을 밝히는 지표로 勞動力 異動²⁶⁾과 고용애로율을 사용하였다.

먼저 勞動力 異動현황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은데, 여기서 사직율이 높다는 것은 勞動市場이 그만큼 뒤틀린다는 것(배무기, 1984, p. 131)을 의미한다. 기업유형별로 보면, 전체적으로 섬유·지역내소유·소기업의 사직율이 높고 따라서 더 취약한 勞動市場을 形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섬유의 소기업·전기전자의 地域內所有 소기업은 생산직 사직율이 100%에 육박·능가하는 엄청난 사직율을 나타내고 있어 가장 취약한 勞動市場을 形成하고 있다.

한편 고용애로율을 통하여 기업에 얼마나 원활한 勞動力 수급이 이루어지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표 13), 생산직의 경우 섬유·地域內所有·소기업이, 전문기술직의 경우 전기전자·地域內所有·소기업이 높은 애로율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地域外所有 대기업은 勞動力수급면에서도 가장 안정된 勞動市場을 形成하고 있다.

앞의 분석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구미地方勞動市場의 內部에서는 대략 전기전자-地域外所有-대기업, 섬유-地域內所有-소기업으로

표 12. 기업별 직종별 勞動力 異動 현황

단위 : 인 (%)

		관리사무직		전문기술직		생산직	
		채 용	사 직	채 용	사 직	채 용	사 직
섬	지역 소	19(19.6)	12(12.4)	4(21.1)	2(10.5)	621 (80.4)	673 (87.2)
	내 중	49(14.0)	34 (9.7)	17(45.9)	11(29.7)	1498 (51.9)	1243 (43.1)
	소유 대	22(14.3)	15 (9.7)	3(30.0)	4(40.0)	800 (54.6)	800 (54.6)
유	지역 소	10(21.3)	4 (8.5)	5 (100)	0 (0.0)	115 (67.6)	108 (63.5)
	외 중	45(14.5)	29 (9.3)	30(23.4)	28(21.9)	2378 (67.9)	2250 (64.4)
	소유 대	44(12.0)	42(11.4)	41(13.1)	6 (1.9)	1052 (24.7)	519 (12.2)
전	지역 소	50(36.0)	41(29.5)	10(52.6)	6(31.6)	577(114.7)	656(130.4)
	내 중	125(18.8)	62 (9.3)	39(47.3)	10 (7.6)	770 (29.9)	714 (27.7)
	소유 대	80(11.9)	34 (5.1)	94(24.2)	37 (9.5)	1140 (29.7)	710 (18.5)
자	지역 소	2(25.0)	0 (0.0)	1(50.0)	0 (0.0)	13 (16.9)	13 (16.9)
	외 중	19 (5.4)	8 (2.3)	14(12.5)	7 (6.3)	472 (25.6)	451 (24.5)
	소유 대	127 (6.0)	57 (2.7)	406(15.1)	92 (3.4)	2538 (14.1)	2194 (12.2)
소	섬 유	189(14.3)	136(10.3)	100(19.5)	51 (9.9)	6464 (49.5)	5593 (42.9)
	전기전자	403(12.3)	202 (6.2)	565(20.6)	152 (5.5)	5510 (20.5)	4738 (39.9)
계	지역 내	345(16.6)	198 (9.5)	167(27.6)	70(11.6)	5406 (44.7)	4796 (17.7)
	지역 외	247 (9.8)	140 (5.6)	497(18.8)	133 (5.0)	6568 (23.6)	5535 (19.9)
계		592(12.9)	338 (7.4)	664(20.4)	203 (6.2)	11974 (30.0)	10331 (25.9)

* ()의 %는 각 해당란의 노동자 수에서 해당 응답기업의 해당직종 노동자수를 나눈 값이다.

**기간은 1988년 한해 동안을 기준으로 하였다.

자료 : 설문지

이어서는 이중적 기업별 勞動市場구조가 形成됨을 알 수 있는데 전자는 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雇傭構造와 안정된 勞動市場과 원활한 勞動力수급을 이루고 있다.

3. 龜尾地方 勞動市場에서의 勞動力再生産過程

먼저 龜尾地方 勞動市場에서 일상적 再生産過程의 지역적 범위는 구미地方 勞動市場 지역 분석을 통해 파악되었다. 한편 대체 재생산과정의 경우는 일단 노동자가 구미地方 勞動市場에 새로이 진입하는 過程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것의 지역적 범위가 再生産의 지역적 범위가 된다. 여기서 노동자가 구미地方 勞動市場에 진입하는 過程은 크게 노동자가 출생·양육되는 過程과 제도적 학교교육을 받는 過程으로 나눌 수 있고, 따라서 再生産의 지역적 범위는 노동자의 出身地 분석과 最終學歷地

분석을 통해 밝혀질 수 있다. 또한 기업체의 교육·현장훈련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구미地方 勞動市場 작업장 내의 再生産過程을 밝힐 수 있다.

(1) 出身地分析

出身地 분석은 연구자에 따라 지역고용창출 효과, 종업원 연계, 노동공급권, 취업네트워크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出身地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연구대상이 되어왔는데, 그것은 취업에 의한 인구이동이 극심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出身地 분석을 통하여 노동자들이 구미내에 얼마나 삶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구미 노동자의 出身地(표 14)를 살

표 13. 기업별 직종별 고용 애로율

단위 : 개소(%)

	응답 기업수	관리사무직		전문기술직		생산직		
		부족	부족응답%	부족	부족응답%	부족	부족응답%	
섬	지역 소	18	2	11.1	4	22.2	14	77.8
	내 중	14	2	14.3	3	21.4	11	78.6
	소유 대	1	1	100.0	1	100.0	0	0.0
유	지역 소	4	0	0.0	1	25.0	4	100.0
	외 중	15	3	20.0	0	0.0	10	66.7
	소유 대	2	0	0.0	0	0.0	0	0.0
전	지역 소	11	1	9.1	5	45.5	7	63.6
	내 중	14	2	14.3	4	28.6	4	28.6
	소유 대	3	1	33.3	0	0.0	0	0.0
전	지역 소	1	1	100.0	0	0.0	0	0.0
	외 중	6	1	16.7	2	33.3	2	33.3
	소유 대	7	0	0.0	4	57.1	1	14.3
소	섬 유	54	8	14.8	9	16.7	39	72.2
	전기전자	42	6	14.3	15	35.7	14	33.3
계	지역 내	61	9	14.8	17	27.9	36	59.0
	지역 외	35	5	14.3	7	20.0	17	48.6
계	96	14	14.6	24	25.0	53	55.2	

자료 : 설문지

표 14. 직종별 노동자의 出身地

단위 : 인(%)

	관리사무(대졸)	관리사무(고졸)	전문기술	생 산	계
구 미	137 (8.8)	596(16.6)	261 (7.0)	6337(16.2)	7331(15.2)
인접시군	117 (7.5)	601(16.7)	341 (9.1)	9892(25.2)	10951(22.8)
대 구	551(35.5)	898(25.0)	1156(31.0)	5757(13.4)	7862(16.3)
기타경북	286(18.4)	955(26.6)	784(21.1)	13363(34.1)	15388(32.0)
서 울	241(15.5)	147 (4.1)	537(14.4)	823 (2.1)	1748 (3.6)
기 타	219(14.1)	393(10.9)	656(17.6)	3564 (9.1)	4832(10.0)
계	1551(100)	3590 (100)	3735 (100)	39236 (100)	48112 (100)

자료 : 설문지

펴보면, 먼저 전체 노동자의 경우, 구미지역 내에서는 겨우 15.2%인 반면 대구권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 86.3%로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구미거주자와 출신자의 차이가 59%나 되어 구미는 상당한 외부유입을 통해 勞動力을 충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직종별로 出身地를 살펴보면, 상층 勞動力인 관리사무직(대졸), 전문기술직의 경우 출신지역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나고, 出身地域에서도 구미와 인접시군보다는 대도시(서울, 대구) 출신이 많은 반면 생산직

의 경우는 出身地域의 범위도 상대적으로 좁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出身地域도 농촌지역이라 할 수 있는 인접시군·기타경북에 높은 비율이 나타나, 직종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하면 구미地方勞働市場의 경우, 출생·양육을 통한 再生産過程은 외부지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따라서 空間的 分業이 투영되는 과정도 기존의 地方勞働市場에 투영되었다기 보다는 空間的 分業의 발생에 의하여 地方勞働市場이 사후적으로 形成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下層勞働力보다는 上層勞働力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2) 最終學歷地 分析

학교교육은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再生産통로인데, 이러한 맥락에서 最終學歷地 분석을 통하여 勞働力の 刷新過程이 차등적으로 再生産되는 지역적 범위를 밝힐 수 있다.

구미노동자의 最終學歷地(표 15)를 먼저 직종별로 살펴보면 우선 上層勞働力인 관리사무직(대졸)과 전문기술직의 最終學歷地인 출신 대학지역의 경우, 중심도시 즉 대구 서울로의 집중이 뚜렷하게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出身地와의 비교에서 그 비율의 차이가 대구(14.5, 20.5), 서울(6.6, 6.2)이 높게 나타남을 통해 알 수 있는데, 특히 대구로의 교육을 위한 인구유입은 매우 위력적이다. 그런데, 구미에서는 出身地보다도 더 낮은 비율로 나타나, 대

학교교육 再生産過程이 원활하지 못함은 물론 대학교육을 위한 인구유출까지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따라 전체노동자의 最終學歷地를 살펴보면, 出身地와의 비교에서 볼 때 대구지역으로의 절대적인 집중이 나타난다. 따라서 앞에서 분석한 결과와 종합해서 볼 때, 最終學歷地는 일반적으로 出身地域보다 고차의 중심도시에 편중되는데, 여기서 대구는 구미내 모든 勞働力の 교육再生産기능을 담당하는 반면, 서울은 上層勞働力만의 선택적인 교육再生産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구미내 학교의 졸업생 대학진학지역과 취업지역 현황을 통해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힐 수 있는데, 먼저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지역을 보면(표 16), 구미내에서 대학교육을 위한 심각한 인구유출과 대구로의 교육再生産기능의 누수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졸업생의 취업지역을 보면(표 17), 대졸노동력과 공고졸속련노동력의 경우는 심한 외부유출현상을 보이는 반면 남녀 고졸노동력 즉 상대적인 하층노동력의 경우는 구미내 취업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구미에서는 再生産통로를 통해 勞働力の 흐름이 이중적임을 알 수 있다. 즉 구미 출신 勞働力은 외부지향성(특히, 대학진학에서는 대구, 서울)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구미地方勞働市場에서는 외부출신 勞働力の 유입이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표 15. 직종별 노동자의 最終學歷地

단위 : 인(%)

	관리사무(대졸)	관리사무(고졸)	전문기술	생 산	계
구 미	86 (5.5)	619(16.6)	188 (5.0)	6147(15.7)	7040(14.6)
인접시군	29 (1.9)	459(12.8)	37 (1.0)	9729(24.8)	10254(21.3)
대 구	776(50.0)	1269(35.3)	1929(51.6)	8145(20.8)	12119(25.2)
기타경북	69 (4.4)	740(20.6)	217 (5.8)	11250(28.7)	12549(26.1)
서 울	342(22.1)	115 (3.2)	769(20.6)	722 (1.8)	1855 (3.9)
기 타	249(16.1)	388(10.8)	595(15.9)	3243 (8.3)	4475 (9.3)
계	1551 (100)	3590 (100)	3735 (100)	39236 (100)	48112 (100)

자료 : 설문지

표 16. 구미소재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진학 지역

단위 : 인(%)

	공고졸	남인문계졸	여고졸	계
구 미	61(83.6)	45(17.1)	0 (0.0)	106(24.0)
대 구	0 (0.0)	108(41.1)	43(40.6)	151(34.2)
기타경북	2 (2.7)	37(14.1)	10 (9.4)	49(11.1)
서 울	0 (0.0)	41(15.6)	0 (0.0)	41 (9.3)
기 타	10(13.7)	32(12.2)	53(50.0)	95(21.5)
계	73 (100)	263 (100)	106 (100)	442 (100)

자료 : 설문지

표 17. 구미소재 대학교·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지역

단위 : 인(%)

	대	졸	공 고	졸	남인문계졸	여 고	졸	고졸소계	계
구 미	79(32.5)	117(17.8)	96(41.7)	166(92.7)	379(35.5)	458(35.0)			
대 구	17 (7.0)	16 (2.4)	36(15.7)	8 (4.5)	60 (5.6)	77 (5.9)			
기타경북	13 (5.3)	4 (0.6)	11 (4.8)	5 (2.8)	20 (1.9)	33 (2.5)			
서 울	45(18.5)	112(17.0)	5 (2.2)	0 (0.0)	117(11.0)	162(12.4)			
기 타	89(36.6)	409(62.2)	82(35.7)	0 (0.0)	491(46.0)	580(44.3)			
계	243 (100)	658 (100)	230 (100)	179 (100)	1067 (100)	1310 (100)			

자료 : 설문지

표 18. 기업자체내의 교육훈련프로그램 현황

단위 : 개소

	교육실시 기 업 수	교 육 내 용		
		정신교육	업무교육	기술교육
관리사무직	34	2	13	1
전문기술직	22	1	6	5
생 산 직	43	1	9	17

자료 : 설문지

(3) 企業內 教育·訓練現況分析

노동시장내에서의 재생산과정은 기업내의 교육·훈련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구미내 기업의 교육·훈련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구미의 재생산과정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성격을 밝힐 수 있게 된다.

먼저 기업자체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황을 보면(표 18), 관리사무직, 전문기술직 보다는 오히려 下層勞動力인 생산직의 교육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교육내용 중 기술교육의 대부분도 생산직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I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고급기술을 아직까지 기업내에서 창출·전수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하여 上層勞動力인 관리사무직, 전문기술직의 경우는 적용과정인 업무교육에 치중하고 본격적인 재생산은 노동시장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4) 勞動力 移動

地方勞動力市場내에서 재생산과정이 원활하지

못할 때 지역간 移動이 발생하게 된다. 구미에서 勞動力 移動현황은 구미시청에서 구득한 전입전출자료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표 19).

여기서 구미의 1988년 한 해 전출입 인구를 모두 합하면 92,547명이 되는데, 이것은 구미의 총인구가 190,132명인 점은 감안해 볼 때 한 해에 총인구의 48.7%가 移動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이러한 엄청난 인구의 이동은 구미地方勞働市場의 勞動力 수요와 공급을 조정하려는 過程에서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앞의 出身地·最終學歷地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구미地方勞働市場에서 勞動力再生産過程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구미는 노동시장과 지역사회 간에 유기적인 결합을 이룬다는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불안정한 지역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 이러한 再生産過程의 누수는 산업도시로서의 구미가 工業區地가 설립된 지 약 20여년이 지난 지금에 지역사회의 유지와 재구

조화를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큰 문제²⁷⁾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4. 個別企業에서의 空間的 分業 -A기업을 사례로

한 지역의 雇傭構造는 결국 개별 기업공간 조직의 雇傭構造가 모여서 形成된 것이다. 따라서 개별기업 空間構造를 통해서 空間的 分業을 밝히는 것은 한 지역 전체에서 나타난 경향에 대한 인과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미에 分工場을, 서울에 本社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인 A기업을 사례로 하여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空間的 分業과 内部勞働市場形成에 관한 문제를 살펴려 한다.

먼저, A기업에서의 서울 本社와 구미 공장 간의 空間的 分業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雇傭構造(표 20)에서 本社는 관리사무직과 전문기술직, 구미공장은 생산직에 높은 비율이 나타나 명확한 空間的 分業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런데 양 운영단위간에 비율이 가장 적

표 19. 구미시의 전출입 현황(1988)

단위 : 인(%)

	전		입 계	전		출 계
	남	녀		남	녀	
서울	1060	756	1816 (3.6)	1123	857	1980 (4.6)
인천	173	140	313 (0.6)	160	131	291 (0.7)
경기	1129	885	2014 (4.0)	724	648	1372 (3.2)
부산	697	454	1151 (2.3)	407	324	731 (1.7)
경남	814	641	1445 (2.9)	624	483	1107 (2.6)
대구	2932	2520	5452 (10.9)	2670	2315	4985 (11.7)
경북	18624	16741	35363 (70.9)	15488	14651	30139 (70.7)
광주	50	50	100 (0.2)	40	39	79 (0.2)
전남	198	159	357 (0.7)	152	116	268 (0.6)
전북	224	170	414 (0.8)	160	84	244 (0.6)
충남	534	370	904 (1.8)	290	225	515 (1.2)
충북	413	307	720 (1.4)	296	258	554 (1.3)
강원	400	247	647 (1.3)	206	102	308 (0.7)
제주	67	21	88 (0.2)	48	15	63 (0.1)
계	27335	22576	49911(100.0)	22338	20248	42636(100.0)

자료 : 구미시청 내부자료

표 20. A기업 本社·구미공장간의 직종별 雇傭構造

단위 : 인(%)

	관리사무(대졸)	관리사무(고졸)	전문기술	생 산	계
본 사	299(21.1)	624(44.1)	303(21.4)	188(13.3)	1414(100.0)
구미공장	135(2.4)	309(5.6)	401(7.2)	4694(84.7)	5539(100.0)
계	434(1.2)	933(13.4)	704(10.1)	4882(70.2)	6953(100.0)

자료 : A기업

표 21. A기업 本社·구미공장간의 경영계층현황

단위 : 인(%)

	임 원	이사부장	부 장	차 장	과 장	대 리 사	원 계
본 사	16(1.3)	8(0.7)	22(1.8)	54(4.4)	78(6.4)	172(14.0)	876(71.5)
구미공장	1(0.1)	2(0.2)	8(0.9)	19(2.1)	35(4.0)	108(12.2)	711(80.4)

자료 : A기업

계 차이가 나는 직종이 전문기술직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구미지역은 기술적 分業단계에서는 本社와 상당히 접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内部勞動市場을 形成하고 있는 정선勞動力(White Collar)의 경영계층에 따른 공간적 分業 현황을 살펴보면(표 21), 서울 本社와 구미 공장간의 경영계층에 따른 외부통제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상위 경영계층으로 갈수록 本社에 높은 비율이 나타나고 따라서 本社에 고차의 의사결정·통제기능이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V. 綜合的 討論 및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空間的 分業현황과 그 空間的 分業 맥락이 구미地方勞動市場에 투영된 메카니즘과 勞動力再生産過程을 통한 구미 지방노동시장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관련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空間的 分業의 맥락은 지역雇傭構造를 통해서 볼 때 크게 서울(혹은 확대된 서울로서의 수도권)과 여타 지역이라는 단선적 지역계층화를 고착시켜 지역격차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空間的 分業은 한편으로는 지역雇傭構造 특히 기술적

分業 단계에서의 雇傭構造를 고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空間的 分業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수준을 요하는 산업에서 주로 대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또한 그것이 기존의 공업집적지보다는 그 주변지역에 투영되어 새로운 地方勞動市場을 形成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의 空間的 分業은 개별기업의 의사결정보다는 지역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가진 정책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별지역이 대기업의 分工場(즉 외부통제)과 정책에만 계속적으로 의존할 때에는 지역사회의 유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을 노정시킨다.

이러한 개별지역의 위상과 문제점은 空間的 分業이 구미地方勞動市場에 투영되는 메카니즘과 구미地方勞動市場에서의 勞動力 再生産過程을 파악하는 사례연구를 통하여 밝혀진다. 먼저 구미지역은 구미시만으로 地方勞動市場이 形成되는데, 이러한 구미地方勞動市場의 雇傭構造를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대기업의 分工場으로 나타나고, 그 결과 구미地方勞動市場은 경영계층적 단계에서는 외부통제를 받는 하위계층, 기술적 分業단계에서는 상위계층지역을 形成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대기업의 分工場은 구미地方勞動市場 内部에서

는 지역내 소유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안정된 勞動市場을 形成하여 지역내의 우수한 勞動力을 선점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통합관계를 파악하는 勞動力 再生産過程은 구미地方勞動市場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심대도시로 기능이 누수되어, 그 결과 구미는 현재 엄청난 인구移動을 겪는 불안정한 지역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구미地方勞動市場의 形成이 지역 內部的 자생적인 過程보다는 외부의 인위적인 힘 즉 정책과 외부통제를 받는 대기업의 分工場에 의해 단기간 내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외부적 충격을 흡수·조정할 자체적 역량이 구미地方勞動市場 내에서 形成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기업의 사례연구에서, 사례기업은 의사통제기능과 생산기능의 분리, 內部勞動市場을 통한 경영계층의 차등적 분리를 통해 空間的 分業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 상층 대졸 勞動力의 경우는 인사권이 지역 외부(本社)에 있음으로 인하여 勞動市場이 지역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기업의 內部勞動市場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上層勞動力의 再生産課程이 구미地方勞動市場에서 더욱 누수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위의 연구결과는 또한 새로운 쟁점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것을 세가지로 추려내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미(주변지역)와 대구(地方대도시)와의 관련성 문제이다. I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구는, 서울은 물론 주변지역인 경북(즉 구미)보다도 훨씬 취약한 雇傭構造를 形成하고 있다. 그런데 IV장에서 밝혔듯이 대구는 구미地方勞動市場 상층노동자의 居住地域, 그리고 전체 노동자(특히 상층노동자)의 教育再生産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이 됨으로써 여전히 지역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구미와 地方대도시 대구와의 역동적인 관계, 즉 대구가 구미地方勞動市場을 발전시키느냐, 와해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단 부정적인 면을 보면 대구는 上層勞動力 중심의 선택적인 거주와 教育기능을 통

해 구미경제의 파급효과는 물론 지역이미지의 박탈을 가져오게 하는 반면, 긍정적인 면을 보면 대구는 구미 上層勞動力의 계속적인 공급은 물론 이러한 勞動力이 외부(특히 서울)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여기서 지역단위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따라 문제의 평가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즉 지역단위를 대구권으로 잡았을 때 대구권은 지역내 勞動力再生産 過程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안정된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역정책이 중심대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권역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구미地方勞動市場이 갖고 있는 문제는 지역단위의 설정에 따라 감춰질 수는 있어도 없어질 수는 없다. 따라서 지역문제를 파악하거나 지역정책을 투입할 시에 분석적 혹은 행정적 편의성에 따라 지역단위를 설정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여기에 지방노동시장 개념의 고려는 지역문제의 진단과 해결을 위한 적절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구미地方勞動市場에서의 외부통제의 문제이다. 즉 많은 연구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외부통제가 구미에서도 역시 똑같은 문제를 노정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綜合적으로 볼때 지금 현재 구미의 대기업 分工場은 외부통제의 단점을 상쇄하고 남을 만큼 양호한 雇傭構造와 勞動市場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이러한 分工場들이 개별자본의 이해보다는 지역개발의 목표를 가진 정책²⁸⁾에 의해 유인되었기 때문에 지역발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조심스럽게 내려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론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외부통제가 지역의 이해관계와 상당히 대립되어 나타나 걸림돌이 되게 된다. 여기서 구미의 의사결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구미내에 자생적인 자본形成과 분리신설(Spin off)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은 구미地方勞動市場이 보다 유기적인 지역통합체가 됨으로써 가능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리하여 결국 문제의 초점은 다시 地方勞動市場의 문제로 귀결된다.

셋째는 정책의 문제이다. 구미는 한마디로 철저히 정책에 의해 이루어진 지역이다. 工業團地는 물론이고 기숙사·사원아파트·훈련기관·학교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손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즉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의 정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본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강력한 정책에 의해 산업화·도시화가 이루어진 지역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비단 구미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흥도시가 모두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현재 지역문제의 상호의존적 성격은 정책을 배제한 개별지역의 자생성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게 만들고, 따라서 현재 지역유지·발전의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구미에는 지역주민의 정착(재생산) 기반을 위한 새로운 도시기능의 정책적 투입이 필요란 실정이다. 그러나 정책의 혜택을 받은 지역에 또 다른 혜택을 투입하는 것은 지역균형 개발이라는 측면에서 소외된 지역의 저항이 발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정책의 투입이 또 다른 정책의 투입을 요하는 증후군이 생기게 된다. 결국 모든 문제의 정책적 해결은 만능이 아님을 알 수 있고, 한편으로는 정책의 문제는 집행하는 정부의 신뢰성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주민의식의 차원까지도 고려되어야 함을 발견하게 된다. 사실상 이러한 차원은 객관적인 수치분석이나 경직적인 집단분류로는 파악하기 힘든 사실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본 논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한계라고 생각된다.

註

- 1) 단순히 입지요소로만 볼 때도 노동은 현대의 기술발달에 의한 비노동요소의 입지극복능력의 증가(Storper & Walker, 1983, p. 2)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2) 이 점에 대해 Massey(1984, pp. 41-43)는 직무(job)가 숙련직 혹은 비숙련직으로 분류되는 것은 勞動力 자체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勞動力의 조직적 힘과 교섭력, 그리고 사회적 이념의 결과라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 3) Spatial division of labor는 노동의 空間的 분화 혹은 공간적 노동분업이라고도 명명되어진다.
- 4) 구미수출산업공단의 '구미공단기업체현황'에 의하면 섬유·전기전자산업은 전체 기업체수의 78.2%, 노동자수의 93.2%를 차지하고 있다.
- 5) 이것은 어디까지나 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박세일(1983)은 이 내용을 '후발산업화가설'이라 명명하였다.
- 6) 이 모형은 앞으로 전개할 사례연구에 그대로 도입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연구를 위하여 단순하게 조작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勞動市場구조를 일반화시킨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 7) 分業은 크게 사회적 分業과 작업장 내 分業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적 分業은 개별적인 생산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상이한 노동형태의 복합체를 의미하는데, 농업·공업·상업 등의 특수한 직업단위로 구분할 수 있다. 한편 작업장 내 分業은 자본가에 의해 계획된 개별생산단위에서의 상이한 노동過程에 따른 노동자 집단의 분리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研究의 대상이 제조업 勞動市場으로 제한되듯이 分業의 의미도 후자 즉 작업장 내에서의 分業으로 제한하여 사용하려 한다. 특히 分業의 구분단위는 앞에서 논의한 勞動市場의 斷層化 구조를 기준으로 하였다.
- 8) 이러한 기업운영단위는 산업체제(industrial system)적 측면에서 공장 등의 생산단위, 의사결정 및 研究개발을 담당하는 연합단위, 제품판매나 서비스 등을 담당하는 공업관련단위 등으로 나누어진다(Hamilton & Linge, 1979, p. 6).
- 9)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에 대해 외부통제가 갖는 장점으로는 모기업의 재정·자원·시장판매체계를 이용할 수 있고 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빨리 흡수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고, 단점으로는 분공장 지역의 개발요구 보다는 본사지역에 유리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불황시 우선적인 폐쇄·도산의 대상이 되고 지역경제에의 통합도가 낮다는 점을 들고 있다(Watts, 1981, pp. 2-3).
- 10) Massey(1984)는 이러한 空間構造를 세가지로 나누었는데, 단일입지구조(concentrated), 의사결정과 생산기능의 분리입지구조(cloning), cloning 구조에서 技術的 分業에 의한 생산기능내에서도 분리입지되는 구조(part-process)가 그 예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part-process 구조임을 알 수 있고, 기업의 다공장화, 생산단위의 수직적 통합(vertical integration) 등의 발달을 통해 나타나게 된다.
- 11) 여기에 포함되는 노동자는 기술기능이 필요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관리직, 사무직,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원자료에 해당없음 판)를 제외한 순수한 기술기능노동자임을 밝혀둔다.
- 12) 立地係數(LQ)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LQ_{ij} =

- i지역j(직종·학력·기술기능정도)노동자수
/전체지역 j(직종·학력·기술기능정도)노동자수
- i지역 전(직종·학력·기술기능정도)노동자수
/전체지역 전(직종·학력·기술기능정도)노동자수
- 여기서 LQ 값이 1 이상이면 그 지역에 해당(직종·학력·기술기능정도) 노동자의 비중 높게 나타난다(즉 상대적으로 특화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의 분석은 이 LQ를 중심으로 진행하려 한다.
- 13) 14) 이하 III장에서 섬유산업은 섬유·전기전자 산업은 전기전자로 줄여서 사용하겠다.
 - 15) Lever의 정의는 영국의 상황에 따라서 그 기준치가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地方勞働市場의 정의의 기준치는 약간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 Lever의 정의를 기계적으로 사용하려 하는데, 이러한 기준치에 대한 적절한 수정이 앞으로의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리라 사료된다.
 - 16) 이 수치는 위의 95% 신뢰구간에 구미공단기업체 전체 노동자수(75,222)를 곱한 값이다.
 - 17) 이러한 고용구조의 기준은 그림 1의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단층구조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 18) 노동부 자료의 전문기술직의 정의와 설문지의 전문기술직의 정의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전체적 경향은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다.
 - 19) 20), 21), 22), 23), 24), 25) 이하 IV장에서 대졸이상은 대졸로, 고졸이하는 고졸로, 구미지방노동시장은 구미로, 지역내소유기업은 지역의 소유로, 지역내소유기업은 지역내소유로, 섬유산업은 섬유로, 전기전자산업은 전기전자로 줄여서 사용하겠다.
 - 26) 勞働力 異動은 하나의 기업을 중심으로 노동자가 입직(accession), 이직하는 것을 말한다(배무기, 1984, p. 129).
 - 27) 당초 구미는 工業團地의 계획목표년도였던 1986년에 약 45만명의 인구를 추산(권규식, 박종우, 1957, p. 6)했었다. 그러나 1988년의 구미 인구는 19만명에 불과하였고, 따라서 구미는 지금 현재 엄청난 인구가동을 겪을 뿐 아니라 工業團地규모에 비한 도시화 속도도 상당히 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28) 물론 국가의 정책은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그리하여 지역의 이해관계를 왜곡되게 반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책이 개별기업보다는 객관적 이해관계자라는 것 또한 사실이다.
- 이동 및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구미 공업단지를 중심으로," 동양문화연구 Vol. 2.
- 김진석, 1989, "공업의 공간연계와 의사결정권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형기, 1988, 한국의 특점자본과 임노동, 까치.
- 박삼옥, 1983a, "공업입지 연구의 동향" 지리학의 과제와 접근방법.
- _____, 1983b, "한국지리학에서 공업입지 연구의 동향과 쟁점," 지리학 논총 10 호. 서울대 지리학과.
- _____, 1985, "한국 대도시지역의 공업입지 정책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Vol. 20.
- 박세일, 1982, "고등교육 확대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I," 한국개발연구 Vol. 4.
- _____, 1983, "학력별 임금격차의 발생원인과 변화과정 분석," 한국개발연구 Vol. 5.
- 배무기, 1984, 노동경제학, 경문사.
- 신무호, 1985, "신공업도시 건설정책에 관한 연구-구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행정문제논집 제 6 집, 한양대 행정문제 연구소.
- 이효수, 1983, "한국노동시장의 단층구조 분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84, 노동시장 구조론. 법문사.
- 황주성, 1987, "전자공업의 입지 및 물자연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ll, R. M., 1980. "The Use and Definition of Travel-to-Work Areas in Great Britain: Some Problems." Regional Studies, Vol. 14.
- Bottomore T. et al., 1983. A Dictionary of Marxist Thought. Harvard V. Press, 임석진 편역, 1988, 마르크스사상 사전, 청아출판사.
- Brown, L. A., England, K. V. L., Goetz, A. R., 1989, Location, Social Categories and Individual Labour Market Experiences in Developing Economies: The Venezuelan Case, International Regional Science Review, Vol. 12.
- Chapman, K. & Walker, D., 1987, Industrial Location. Basil Blackwell.
- Clark G. L., 1981. "The Employment Relation & Spatial Division of Labor: A Hypothesis." Annals of the Association of American Geographers, Vol. 71.
- _____. 1983. "Government Policy & The Form of Local Labor Market," Urban Geography, Vol. 4.
- Clark, G. L., & Gertler, M., 1983. "Local Labor Markets: Theories & Policies in the U.S. during the 1970s," Professional Geographer, vol. 35.
- Cooke, P., 1983. "Labour Market Discontinuity & Spatial Development," Progress in Human Geography, Vol. 7.
- Dawson, J. A. & Findlay, A. M. & Sparks, L., 1986.

참고문헌.

권규식, 박종우, 1975, "한국 신흥 공업단지의 인구

"Defining the Local Labor Market: An Application of Log Linear Modelling to the Analysis of Labor Catchment Areas," *Environment & Planning A*, Vol. 18.

- Dicken, P., 1976, "The Multiplant Business Enterprise and Geographical Space: Some Issues in the Study of External Control and Regional Development," *Regional Studies*, Vol. 10.
- Doeringer, P. & Piore, M., 1971, *Internal Labour Markets and Manpower Analysis*, D. C. Heath.
- Hamilton, F. E. I. ed., 1974, *Spatial Perspectives on Industrial Organization and Decision-making*, John Wiley & Sons.
- Hamilton, F. E. I. & Linge, G. J. R., 1979, "Industrial Systems," F. E. I. Hamilton & G. J. R. Linge (eds.),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vol. 1, John Wiley & Sons.
- Johnston, R. J. et al. (eds), 1986, *The Dictionary of Human Geography*, Blackwell Reference.
- Lever, W. F., 1979, "Industry and Labour Markets in Great Britain," F. E. I. Hamilton & G. J. R. Linge (eds.), *Spatial Analysis, Industry and the Industrial Environment*, Vol. 1, John Wiley & Sons.
- Lloyd, P. E. & Dicken, P., 1977, *Location in Space*, Harper & Row.
- Massey D., 1984, *Spatial Division of Labour*, MacMillan.
- _____, 1986, "Toward a Critique of Industrial Location Theory," *Antipode*, Vol. 5.
- Nichols T. ed., 1980, *Capital and Labour*, Fontana Paperbacks.
- Storper, M. & Walker, R., 1983, "The Theory of labour & the Theory of Loc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Urban & Regional Research*, Vol. 9.
- _____, 1984,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Labor and Location of Industries," *Sunbelt / Snowbelt*, Oxford University Press.
- Watts, H. D., 1981, *Branch Plant Economy*, William Clowes Ltd.
- _____, 1987, *Industrial Geography*,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ABSTRACT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and The Characteristics of Kumi Local Labor Market

Won-Seok, Park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first, to presen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and its mechanism, and second, to elucidate the organic integral relation between local labor market and local community by studying the mechanism that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s projected into the individual local labor market, and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this local labor market.

According to this purpose, the theoretical frame of this analysis is done, the positive analysis is made and Kumi is choosed as its analysis case area. The main data is from 'Survey Report on Manufacturing Industry Wage Conditions' published by Minimum Wage Council, Ministry of Labour and from the 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on textile industry and electric electronics industry firms in Kumi Export Industrial Estate.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The mechanism of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seen through the employment structure index, is accelerating the regional discrimination by fixing the regional hierarchisation between Seoul (or Seoul Metropolitan Area as expanded Seoul) and other areas. But it is also developing highly the regional employment structure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since the spatial division of labor in Korea is leaded by large firms and influenced by the policy for regional development.

2. Local labor market is formed in Kumi area and its delimitation is Kumi city. The employment structure of Kumi local labor market is occupying lower hierarchy division

at management hierarchical level and occupying upper hierarchy division at the level of technical division of labor, and branch plants of large firms are determining and dominating this employment structure. These branch plants of large firms are forming more favorable and stable labor market than locally controlled plants in Kumi local labor market. But the reproduction of labor force process in Kumi local labor market is not fully carried out and leaked into central city, therefore Kumi is now becoming an unstable local community, suffering from

large movement of population. This is because Kumi local labor market is formed not for itself, but by the state policy and externally controlled plants of large firms, and therefore no potentiality to control and to absorb the exterior influences is built in Kumi local labor market.

3. The case firms A, B have spatial division of labor between decision-making function and production function, and between upper management hierarchical labor force and lower management hierarchical labor force in internal labor market.